

“근무환경 열악해” 시·군 떠나는 공무원들

전남도 본청 전입 2012년 2명서 2015년 52명

지방행정 발전 장애 ... 공무원 지역 안착 대책 시급

근무여건이 열악한 시골 지역을 떠나는 일선 시군 공무원들이 매년 증가, 지방행정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26일 전국 광역시·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4년간 광역시도 진출 및 타(他) 직렬 합격으로 퇴직하는 지자체 공무원 현황’에 따르면 광주, 서울, 부산, 인천 등 특별·광역시 지자체 공무원들과

달리 광역도 지자체 공무원들의 지역 이탈 규모가 훨씬 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남도의 경우 매년 시군을 떠나 본청으로 전입하는 공무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에 따르면 일선 시군구를 떠나 본청으로 전출 간 공무원 수는 2012년 567명, 2013년 506명에서 2014년 513명, 2015년 683명이었다. 지난해 전출자 수가 2012

년에 비해 20.5% 늘어난 것이다.

이를 광역시와 광역도 지자체로 나누어 보면, 특별·광역시의 본청 전출자는 2012년 62명, 2013년 63명, 2014년 80명, 2015년 124명으로 소규모였으나 광역도 본청 전출자는 2012년 505명, 2013년 443명, 2014년 433명, 2015년 559명으로 대규모로 이뤄졌다.

특히 전남도의 경우 지난 2012년 2명에 불과했으나 ‘2013년 14명→2014년 18명→2015년 52명으로 본청 전출자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울산광역시에도 27명이 본청으로 전출했다.

광주시의 경우 본청 전출자는 2012년 2

명→2013년 8명→2014년 26명→2015년 20명→올 상반기 14명이었다.

이처럼 일선 시군 공무원들의 본청 진출 규모가 큰 것은 생활 여건과 근무 환경이 열악한 때문이라는 게 황 의원의 분석이다.

황 의원은 “지방에서 공무원은 최고의 지역 인재인데 그러한 사람들이 떠나는 근무지를 찾아 떠나는 것은 해당 지역에 엄청난 손실이다”며 “지자체 공무원들이 지역에 안착하도록 개선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 세계수영대회 사무국 개소 ... 준비 본격화

오늘 동구 대원빌딩서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사무국을 열고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들어간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조직위는 27일 광주 동구 대원빌딩에서 사무국 개소식과 현판식을 연다. 조영택 조직위 사무총장 선임, 사무국 조직 승인, 대회 시설 설계비 등의 내년 정부 예산안 반영에 이어 사무국이 출범하면서 대회 준비는 탄력을 받게 됐다.

사무국은 경기시설, 경기운영, 대회 홍보, 마케팅 등 분야별 준비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기관이다. 사무국은 시와

함께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등록,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계획 승인 등 국비 지원 절차를 밟고 경기장 개축, 마케팅 대행사 선정, 선수촌 건립 등 지원 업무도 하게 된다. 우선 12명으로 출발해 연말까지 35명, 2018년 80여 명, 2019년 140여 명으로 단계적으로 조직을 확대할 계획이다.

광주 세계수영대회에는 2019년 7월 19일부터 8월 16일까지 207개국 선수단, 국제수영연맹 관계자 등 1만5000여명이 참가한다.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 등 5개 경기장에서 경영, 다이빙, 수구 등 6개 종목(7개 세부종목) 경기가 펼쳐진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역~송정역 셔틀열차 광주역 활성화 미봉책 불과 부지 시민공간 활용해야”

광주역·철길 시민환원대책위

광주역·철길 시민환원 대책위가 26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역 부지와 철길의 시민 공간 활용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국토교통부가 10월 중순에 발표할 철도운영계획에도 KTX가 광주역에 진입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광주역~송정역 셔틀열차 운행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셔틀열차 운행 비용 광주시 부담 ▲차량정제, 철길 주변 시민 고층 과중 ▲환승 불가 열차 운임 2600원 등을 이유로 들어 예산 낭비의 우려가 깊은 자충수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늦기 전에 철길 주변의 상인·주민, 광주 시민이 동의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광주역 부지와 철길의 시민 환원을 촉구했다.

대책위원들은 “광주역과 철길로 막혔던 도로를 개설하고, 광주역 부지에 행정복합타운과 문화·체육 복합시설을 건설해야 한다”면서 “철길을 따라 푸른길을 조성해 광주의 발전 축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광주역·철길 시민환원 대책위는 더는 광주시의 대책 수립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나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광주역 부지·철길 시민 환원”

광주역·철길 시민환원 대책위원회는 26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역의 송정역~광주역 셔틀열차 운영을 줄축행정으로 비난하고 광주역 부지와 철길의 시민 공간 활용을 촉구했다.

【광주역·철길 시민환원 대책위 제공】

전기화물차 생산기반 조성·기술개발 힘 모은다

광주시-CJ대한통운-조이롱 코리아 업무 협약

광주시는 26일 오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CJ대한통운, 조이롱 코리아와 전기자동차 산업 육성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했다.

이날 협약은 3월 중국 업체인 조이롱 자동차, 페넌토그룹이 광주에 완성차공장을 설립하는 내용의 지난 3월 투자유치 의향서의 후속조치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전기 화물차 생산기반 조성, 행·재정적 업무 등을 지원하고 조이롱 자동차의 한국 법인 조이롱 코리아는 택배 등 화물운송에 적합한 전기 화물차 기술을 개발하고 차량제작 및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CJ대한통운은 조이롱 코리아와 함께 전기화물차 기술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생산된 전기화물차를 현장에서 테스트한 뒤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자동차 생산과정 전 영역의 물류업무를 맡는 등 광주 자동차산업과 물류발전에 협력한다.

CJ대한통운은 2012년부터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알려진 경유차량을 대체하려고 실버택배 사업에 전기자전거, 전기카트 등을 이용했다.

화물경유차 1대가 1년(주행거리 2만6천

km 기준)에 내뿜는 이산화탄소는 약 4.8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하면 대당 약 960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와 맞먹는다고 시는 설명했다.

CJ대한통운의 1t 택배 차량은 하루 평균 운행 거리가 100km 이내, 이동반경 5km 이내로 일정에 전기차로 대체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조이롱코리아는 지난 23일 법인 등 기절자를 마치고 광주공장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CJ대한통운과 협약은 앞으로 조이롱코리아 광주공장에서 생산될 차종 보급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독거노인 ‘고독사 지킴이단’ 발족

마을 통·이장 등 2599명 구성

전남도가 26일 독거노인 등을 보살피는 ‘고독사(孤獨死) 지킴이단’을 발족했다.

지킴이단은 이름 그대로 독거노인 등이 외롭게 죽어가는 것을 막는 활동을 벌인다.

지킴이단은 마을 통·이장, 부녀회장, 종교단체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총 259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고독사 위험이 있는 독거노인 1811명을 주기적으로 보살피는 역할을 한다.

고독사 지킴이단은 정기적으로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노인들

의 근황을 챙긴다. 고독사 위험이 있는 중장년층(40~64살) 691명도 보살핀다.

앞서 전남도는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40세 이상 64세 이하 1인 가구 중 사회취약계층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고독사 지킴이단 발족은 1인가구 증가와 초고령화 사회 진입,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의미 있는 출발”이라며 “정부와 다른 지자체에서도 고독사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도시지역 자동차매매 등록 요건 완화 추진

강성희 도의원 조례안 발의

전남 도시지역에서 자동차매매 사업자 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성희 전남도 의원은 26일 자동차 전 시시설이 도시지역은 12m 이상의 도로에,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8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자동차매매업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남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를 도

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의 구분 없이 전 시시설이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정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성희 의원은 “목포시를 비롯한 도 내 5개 도시지역에서 자동차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조례가 개정되면 자동차매매업의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전남도, 美 LA 사무소 설치 적극 검토

전남도가 미국 LA 사무소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최근 미국을 방문해 LA 한국 특파원과 간담회를 하고 수출입 동향 파악 등 통상업무와 지역간 교류·협력을 위해 LA 사무소가 필요하다는 특파원들의 지적에 공감을 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LA 사무소 설치 결정이 이

뤄지면 이른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광주를 비롯한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가 LA사무소를 두고 있다. 전남도는 현재 뉴욕, 오사카, 상해, 프랑크푸르트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상해에는 소장을 포함해 4명이, 나머지 3개 지역에는 소장을 포함해 2명이 근무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

부동산 실무전문가 박관식대표의 특별세미나

부동산시장의 전망과 성공투자전략!

혼돈스러운 경제상황과 예측하기 어려운 부동산시장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 등 수도권 및 지방 아파트시장의 전망과 분석 개발은 넘쳐나는데.. 가장 매력적인 투자지역은 어디일까? 토지시장에 대박이 있다! 미래가치가 높은 신개발지를 찾아라!

강의내용

- ✓ 수도권 및 지방 아파트시장의 전망
- ✓ 전국 토지시장의 전망과 분석
- ✓ 수도권 및 지방의 최고 노른자위를 찾아라!
- ✓ 개발지에서 성공투자하는 법!

행복한 부동산 강의와 상담이 함께하는 [박관식 전문가의 방송 안내]

▶ WOW 한국경제TV '부동산하라인' 생방송 출연중!! (매주 일요일 저녁7시(보방) / 밤12시(재방))

무료 특강 일시 및 장소

광주
• 일시 : 9월 28일(수) / 오후 2시~5시
• 장소 :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14호 (광주시 서구 치평동 1159-2)

서울 여의도
• 일시 : 10월 3일(월) / 오후 2시~5시
• 장소 : 한국경제TV 금영아카데미 와우파 (여의도역 4번출구 3번거리 직진 삼성모바일서비스센터 건물 6층)

* 당일 혼잡할 수 있으니 사전접속 바랍니다

(KLD) 한국토지개발원

부동산세미나 문의 : 02)595-4236, 4237

